

비상장 중소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이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DK사의 사례분석

김선배

안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010-2019-0970
sbkim@dpamstech.co.kr

박성종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010-9031-9997
sjpark@anyang.ac.kr

김승일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010-8778-8553
sikim21@naver.com

비상장 중소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이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DK사의 사례분석

김선배¹⁾ · 박성종²⁾ · 김승일³⁾

본 사례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여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산출하는지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회계책임자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신중한 의사 결정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분석, 신용평가, 미래예측 및 기업간, 업종간 비교하여야 할 경우, 재무수치나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주석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생산설비 등의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워져야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와 회계담당자, 또한 이들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기준과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이를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글색인어 :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재무수치, 재무비율

-
- 1) 안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sbkim@dpamstech.co.kr), 주저자
 - 2)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E-mail: sjpark@anyang.ac.kr), 교신저자
 - 3) 안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sikim21@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는 기업의 국내 및 해외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에 따라 종전기업회계기준(Korea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K-GAAP”)을 포기하고,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을 채택하였다(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2007).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과 금융지주회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K-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업 중 희망하는 경우 K-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을 이원화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적용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 기업특성에 따라서 회계기준이 3원화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K-IFRS 채택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와 세무업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의 과세유예,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법인세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최원숙 등, 2012).

이와 같이 K-GAAP를 포기하고 K-IFRS 채택은 우리나라 회계기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최관 등, 2013)일 뿐만 아니라, K-IFRS는 K-GAAP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⁴⁾

첫째, K-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회계담당자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K-GAAP가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인 것과 차이가 있다.

둘째,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정보가 공시되므로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진다. 기말뿐만 아니라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공시가 이루어진다. K-GAAP에서도 연결재무

4)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2010),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pp.24~25.

제표가 공시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 공시후 1개월후에 부수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셋째, K-IFRS는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K-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GAAP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졌다.

넷째, K-IFRS는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시점에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K-GAAP에서는 상환의무와 관계없이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K-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최관 등(2013)은 K-IFRS는 K-GAAP와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회계기준이고,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므로 연결범위 변경(김기엽과 심태섭, 2011),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에도 유연성이 있으며(노민영 등, 2012), 재무제표상의 항목분류(박종찬과 박보영, 2012)가 달라질 수 있고, 영업손익의 결정, 건설업의 수익인식, 자산재평가의 선택적 회계처리, 자산손상차손의 인식, 충당부채의 설정, 퇴직급여 회계처리,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부채와 자본으로의 분류, 금융업의 BIS 결정,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등에서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K-GAAP에 비해 많아졌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K-IFRS 채택으로 인한 새로운 기준의 채택과 관련된 사례연구들과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나 공시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K-IFRS 채택이 결정된 이후에 K-IFRS를 조기 채택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처리 조정문제 등에 관련한 사례(박선영 등, 2010; 김정옥, 2010; 전준구 등, 2010)와 K-IFRS 채택 이후 2010년도와 2011년도의 회계처리와 회계선택에 관련한 사례(안태식 등, 2011; 최보람과 최기호, 2011; 김한수 등, 2010a; 김한수 등, 2010b; 강선민, 2010, 고완석, 2010; 박경호 등, 2009; 곽수근 등, 2011; 권수영 등, 2011; 손혁 등 2011; 최은실과 강일주, 2012; 박성진과 김한수, 2011; 박성종, 2011; 정운오 등, 2011; 박성진 등, 2011; 최은실 등, 2012)연구 등이 있다(최관 등, 2013). 그러나 K-IFRS 채택 이후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이 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사례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회계학 서적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사례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권수영 등(2010)은 삼성전자가 1995년도에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변경됨으로 회계변경을 통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전년도 보다 1조원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순이익을 감소시켰다고 하면서 회계변경의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종학(2012)은 홍콩의 지하철회사(MTR)가 상장하기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무려 100년으로 늘려서 변경전보다 몇 분의 일 수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대폭 감소시킴으로 막대한 이

익을 증가시켜 보고한 후 증시에 상장하였을 때, 이익이 증가한 재무수치만 보고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폭등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K-GAAP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하고, 내용연수를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K-IFRS 최초 채택시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회계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졌다.⁵⁾ 이와같은 상황에 관하여, 황인태와 강선민 (2012)은 K-GAAP 제5호와 K-IFRS 제1016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선택에 관한 내용이 동일함에도 K-IFRS를 최초 채택시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일률적으로 변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만우 등(2014)은 IFRS 채택 후 상당수의 기업이 유형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함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했으며, 기업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 유형자산의 사용가치가 더 크게 감소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K-IFRS 기준서 1016호 문단 51과 문단 61에서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즉, K-IFRS에서는 매 회계연도말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경영성과 항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신현걸 등, 2010, 서란주 등, 2011).

또한 최보람과 최기호(2011)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각 부분이 전체 원가에 대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를 매 회계연도 말에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내용연수 결정이 중요한 회계 의사결정이 되었고, 법인세법에서도 새롭게 K-IFRS 채택 기업을 위한 감가상각특례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K-IFRS 채택 기업의 내용연수 변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종서와 공경태(2014)는 K-GAAP에 비해 K-IFRS가 여러 가지 상이한 회계처리규정을 지니고 있으나, 이중 무형자산의 손상검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계상, 별도 재무제표의 관계기업 주식에 대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그리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경제적 실질원칙의 적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만우 등(2014)의 연구에서 K-IFRS 채택시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

5) 이동주(2010)의 연구에서는 K-IFRS 조기 채택한 기업 53개 중 20개 기업이 내용연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 실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K-GAAP와 K-IFRS를 모두 적용하여 작성된 2010년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96개 기업 표본중 527개 기업, 약 88%의 기업이 K-IFRS를 채택함으로 유형자산 금액이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FRS 채택시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의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황인태와 강선민(2012)의 연구에 의하면, K-IFRS 채택전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한 기업은 741개로 전체기업의 59.9%였으며 정액법을 사용한 기업은 497개로 40.1%였으나, 2011년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정률법을 사용하던 기업 중 700개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정률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41개로 3.3%에 불과하고 1,197개 96.7% 기업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고, 공기구의 경우 K-GAAP를 적용했을 때에는 정률법 671개(61.6%), 정액법 422개(38.4%)였으나 K-IFRS 채택 이후에는 정률법 43개(3.9%), 정액법 1,056개(96.1%)로 K-IFRS 채택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액법을 사용하고, 이러한 현상은 차량운반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 내용연수의 결정은 중요한 회계의사결정(최보람과 최기호, 2011)이며, K-IFRS 채택시 대부분의 기업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황인태와 강선민, 2012)하고, 일률적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은 기업의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⁶⁾이 높을 경우 일정시점과 일정기간의 경영실적을 수치로 표현하는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최초 채택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취득시점에 따라 기업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범위내에서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보람과 최기호(2011)는 K-IFRS 채택에 따른 법인세법 감가상각특례규정이 K-IFRS 채택 기업들의 유형자산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K-IFRS 채택 기업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일반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K-IFRS를 최초 채택할 시점과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볼 필요성을 갖게 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

6)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결과(해설 및 통계편)에 의하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3.92%로 보고하고 있다(윤우영과 정원일; 2015).

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선행연구(이동주, 2010; 신현걸 등, 2010; 최보람과 최기호, 2011; 서란주 등, 2011; 황인태와 강선민, 2012; 최종서와 공경태, 2014; 이만우 등, 2014) 등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K-IFRS 최초 채택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 또한 변경하고 있다. 이는 K-IFRS 최초 채택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와 세무업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의 과세유예,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허용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등과 같은 법인세법 특례조항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 또한 종전 보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의 부담은 당기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재무 수치와 재무비율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최초 채택시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을 경우, 사례기업의 재무자료를 실증분석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최초 채택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첫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회계책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선택 가능한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경우,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선택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여 재무자료를 이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단순히 기업의 재무수치나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기업이 선택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방법에 관해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주석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사례기업을 소개하고, 사례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의 변경과 K-IFRS 최초 채택하에서의 변경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4장은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규정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특성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규정중 본 사례연구의 주제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과 관련한 기준과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K-IFRS 제1016호⁷⁾

K-IFRS 제1016호는 유형자산에 관한 기준서로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문단43에서 문단62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1.1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문단43).

2.1.2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문단50).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51).

2.1.3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문단6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61).

7)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중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을 발췌

2.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정하여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의 인식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32호에서 40호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2.1 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10장32).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지만 실무상 잔존가치가 경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여, 재검토 결과 새로운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10장33).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10장36)

2.2.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10장38).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10장39).

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기준서 중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을 발췌.

2.3 법인세법 규정⁹⁾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2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제1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별표6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K-IFRS 최초 채택시 대부분의 기업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였고,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이 허용되었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감가상각범위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와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23조).

2.3.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2.3.3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¹⁰⁾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9) K-IFRS 채택과 관련한 규정을 발췌함.

10) 이 경우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 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이와 같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시에는 이러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과 관련된 법인세법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III.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사례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주형 및 금형제조업과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DK사¹¹⁾를 선정하였다. 이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이 아니지만, 2012년도에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인수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2012년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한정된 이해관계자들¹²⁾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기업이 비록 중소규모의 기업이지만, 사례분석을 하자 하는 사업연도¹³⁾의 사례기업 재무자료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자료이고,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기업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감사보고서상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중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중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 유형자산

11) 본 사례연구는 사례기업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의 동의와 협조하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감사보고서, 결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 및 기술평가보고서, 회사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사례기업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실제 회사 상호 대신에 DK사로 명칭하였다.

12) 사례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채권자등 금융기관, 세무당국등 정부기관, 신용평가기관등 고객사등 한정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다.

13) 사례연구의 편의상 사례분석에 활용된 사업연도는 2013년도와 2014년도이며,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를 최초로 채택할 경우 감가상각방법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의 차이항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이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조정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본 사례연구의 주제인 비상장 중소기업이 선택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1 DK사의 연혁

3.1.1 설립 및 일반현황

DK사는 반도체테스트 소켓용부품, 스마트폰 카메라용부품, 자동차 조향장치부품 등의 제조와 이를 위한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 5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 대표이사가 2009년 9월에 법인을 인수하여 매년 지속적인 설비투자, 연구개발, 임직원 기술교육을 통하여 국내외 거래선과 주력상품의 품목 다변화를 통하여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다. 사례기업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DK사의 주요연혁

연 도	연 혁
2014. 12	기술사관 산학협력 체결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014. 11	300만불 수출탑 수상 - 한국무역협회
2014. 10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경기도
2014. 10	산업혁신 3.0우수기업 -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
2014. 08	일학습병행제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4. 07	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4. 06	기업은행 유망중소기업 - 기업은행
2014. 06	수출유망중소기업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4. 06	뿌리기술전문기업 - 중소기업청
2014. 05	부품소재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2014. 04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인증 - 중소기업청
2011. 05	ISO/ TS16949/2009 인증등록
2010. 1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미래창조과학부
2009. 09	현 대표이사가 법인 인수
2004. 05	DK사 법인설립

3.1.2 산업의 특성

DK사가 소속한 산업은 세세분류기준으로 주형 및 금형제조업(C29294)과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제조업(C22299)이며. 주요 주력제품은 반도체테스트 소켓용부품, 스마트폰 카메라용부품, 자동차 조향장치부품 등의 제조와 이를 제조하기 위한 플라스틱사출금형이다. 사례기업의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기술신용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테스트 소켓용부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최종 출하 직전 반도체를 전수 검사하게 되는 데, 이 때 고온, 과전류 등 악조건 하에서 반도체를 검사를 할 때 사용 되는 반도체 검사용 제품이다.

둘째, 스마트폰 카메라용부품은 일반 피처 폰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등의 카메라모듈의 렌즈조립용 구성부품이다.

셋째, 자동차 조향장치부품은 자동차의 기계식 기술에 전자식 기술을 접목한 전자식 조향장치용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며, 고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어 제품개발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이며, 전기적 기술, 금형기술, 화학적 기술, 생산기술, 정밀가공기술 등 관련 소재 가공기술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끝으로, 사출금형(Injection Mold)은 재료의 소성과 전연성, 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함으로써 제품을 얻기 위한, 주로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틀(形), 또는 형(型)으로써 타 업종에 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기술집약적이며, 모든 산업의 발전과 구조 고도화에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며, 고부가가치와 외화가득을 높은 수출 전략적 산업이다. 금형은 성형장비에 설치되어 제품의 반복 성형에 사용되며, 성형되는 플라스틱제품의 정밀도를 좌우하므로 금형의 가공 정밀도가 매우 중요하며, 플라스틱 성형방법의 기술개발에 영향을 받는다.

사례기업이 제조하는 플라스틱사출금형은 초정밀한 제품으로 설계, 기계가공기술, 조립기술, 측정기술과 정밀가공설비가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이고 장치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금형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부품도 금형 제조기술과 설비와는 별도로 사출성형을 위한 성형기술, 측정기술과 사출성형설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방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경량화, 고정밀화 및 고기능화로 사출성형부품의 초정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사례기업이 속한 산업은 매우 기술집약적이며, 장치산업으로 총자산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과 생산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기업이다.

이와 같이 사례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출과 생산설비 투자는 매 사업년도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사례기업이 선택하는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에 관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재무현황

DK사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 주요재무비율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DK사의 요약재무제표

항 목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3,543	56.3	4,732	55.6	7,579	64.3
당좌자산	2,975		3,249		5,731	
재고자산	568		1,483		1,848	
비유동자산	2,754	43.7	3,779	44.4	4,199	35.7
투자자산	412		515		680	
유형자산*	2,204	35.0	2,895	34.0	3,189	27.1
무형자산	28		14		-	
기타비유동자산	110		355		330	
자산총계	6,297	100.0	8,511	100.0	11,778	100.0
유동부채	3,170		2,921		4,379	
비유동부채	1,259		2,589		2,555	
부채총계	4,429	70.3	5,510	64.7	6,934	58.9
자본금	500		500		500	
자본조정	106		106		106	
이익잉여금	1,262		2,395		4,238	
자본총계	1,868	29.7	3,001	35.3	4,844	41.1
부채와자본총계	6,297	100.0	8,511	100.0	11,778	100.0

패널B: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

항 목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출액	7,308		12,375		17,684	
매출원가	5,463		9,073		13,635	
매출총이익	1,845	25.3	3,302	26.7	4,049	22.9
판매비와관리비	1,000		1,675		1,895	
영업이익	845	11.6	1,627	13.1	2,154	12.2
영업외수익	12		131		229	
영업외비용	323		590		28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34		1,168		2,096	
법인세등	11		34		102	
당기순이익	523	7.2	1,134	9.2	1,994	11.3

패널C: 현금흐름표

(단위:백만원)

항 목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	(221)	2,378	3,221
당기순이익	524	1,134	1,994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감가상각비)	858	2,713	2,398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673	2,148	2,023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600)	(1,467)	(1,16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87)	(3,221)	(2,49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46	248	39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시설투자)	(633)	(3,469)	(2,89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13)	(2,864)	(2,31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506	490	(1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920	4,220	1,800
현금의증가(감소)	(1,414)	(3,733)	(1,900)
기초의현금	898	(353)	627
기말의현금	331	1,229	876
	1,229		1,503

패널D: 유형자산 변동상황

(단위: 백만원)

항 목	전기취득 가액누계	당기 취득가액	처분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2012년이전	3,712	311	22	673	1,797	2,204
2013년도	3,994	2,864	24	2,148	3,939	2,895
2014년도	6,819	2,316		2,023	5,946	3,189

패널E: 주요 재무비율

구 분	비율(단위)	산식	2013년도	2014년도
안전성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162.0	173.1
	당좌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x100	111.2	130.9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x100	183.6	143.2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x100	35.3	41.1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x100	13.1	12.2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x100	9.2	11.3
	총자본순이익율(%)*	순이익/총자본x100	15.3	19.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회)*	매출액/총자산	1.7	1.7
	자기자본회전율(회)*	매출액/자기자본	5.1	4.5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당기총자본/전기총자본-1)	35.2	38.4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	116.4	75.8
	유형자산증가율(%)	(당기유형자산/전기유형자산-1)	31.4	10.1

* 총자본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을 산출하기 위한 총자본, 총자산, 자기자본은 “(전기+당기)/2” 임

3.1.4 회계처리방침

DK사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사항 중, 본 사례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이다. 유형자산에 대해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취득원가(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 가치)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지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표3>과 같은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다.

<표3>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기 계 장 치	정률법	4년
차 량 운 반 구	정률법	4년
공 구 와 기 구	정률법	4년
비 품	정률법	4년
시 설 장 치	정률법	4년

*DK사가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설립 초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중 하한선 4년을 2014년도까지 적용하고 있음.

둘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에 따라 중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등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3.2 재무제표의 재작성

본 절에서는 DK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2013년도에 K-IFRS 최초 채택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것으로 가정하여,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받는 제조원가, 매출원가, 제품재고자산, 법인세 등을 추정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3.2.1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DK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인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는 기계장치와 시설장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10년으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동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재산출하면, <표4>와 같이 기존의 정률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보다 감가상각비가 2013년도에 1,543백만원, 2014년도에 1,284백만원이 감소하게 되고,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2013년도에 1,543백만원, 2014년도에 2,830백만원 증가하게 된다.

<표4>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시 유형자산 변동상황¹⁴⁾

(단위:백만원)

항 목		전기취득 가액누계	당기 취득가액	처분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 가액
2013년도	변경전	3,994	2,864	24	2,148	3,939	2,895
	변경후				605	2,396	4,438
	차액				(1,543)	(1,543)	1,543
2014년도	변경전	6,819	2,316		2,023	5,946	3,189
	변경후				739	3,116	6,019
	차액				(1,284)	(2,830)	2,830

3.2.2 감가상각비의 안분계산

<표4>에서 보는 봄과 같이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함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차액은 DK사의 제조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DK사의 기존 재무제표 항목 중 관련된 계정과목 금액비율로 안분계상하여 각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표5>와 같다.

14) 2013년도 Dr. 감가상각비(-)1,543백만원 Cr. 감가상각충당금(-)1,543백만원

2014년도 Dr. 감가상각비(-)1,284백만원 Cr. 감가상각충당금(-)1,284백만원

<표5> 계정과목별 감가상각비 추정¹⁵⁾

패널A: 2013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매출 원가	제품 재고	합계	제조원가			판관비	합계
				매출 원가	제품 재고	소계		
변경전	8,658	1,270	9,928	1,855	272	2,127	21	2,148
변경후	7,325	1,075	8,400	522	77	599	6	605
차 액	(1,333)	(195)	(1,528)	(1,333)	(195)	(1,528)	(15)	(1,543)

패널B: 2014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매출 원가	제품 재고	합계	제조원가			판관비	합계
				매출 원가	제품 재고	소계		
변경전	12,384	1,131	13,515	1,833	168	2,196	22	2,023
변경후	11,221	1,024	12,245	670	61	731	8	739
차 액	(1,163)	(107)	(1,270)	(1,163)	(107)	(1,270)	(14)	(1,284)

15) 2013년도 Dr. 매출원가(-) 1,333백만원 Cr. 감가상각비 (-)1,543백만원

제품재고(-) 195백만원

판관비 (-) 15백만원

2014년도 Dr. 매출원가(-) 1,358백만원 Cr. 감가상각비 (-)1,284백만원

제품재고(-) 107백만원

전기제품재고 (-) 195백만원

판관비 (-) 14백만원

3.2.3 법인세 등의 추정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각각 1,348백만원, 1,373백만원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사례기업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와 K-IFRS를 최초로 채택할 경우에 따라 법인세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6>은 어떠한 회계기준을 채택하여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¹⁶⁾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례기업이 채택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 등을 살펴보면, K-IFRS를 최초로 채택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기전 보다 법인세 등이 2013년도는 34백만원에서 331백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102백만원에서 404백만원으로 증가됨으로 각각 297백만원, 302백만원이 추가 부담하게 된다.

<표6>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등 추정

(단위:백만원)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2013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변 경 전	세전이익	1,168	2,096	1,168	2,096
	법인세 등	34	102	34	102
변 경 후	세전이익	2,516	3,469	2,516	3,469
	법인세 등	331	404	34	102
차 액	세전이익	1,348	1,373	1,348	1,373
	법인세 등	297	302	0	0

3.2.4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례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를 적용하여 추정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시 유형자산 변동상황<표4>, 계정과목별 감가상각비 추정<표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 추정<표6>상의 재무수치를 반영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재무제표를 추정하여 재작성하면 <표7>과 같다.

16)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부담액은 차년도 자금부담으로 금융비용이 발생됨으로 영업외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어 차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본 사례분석에서는 무시함.

<표7>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후 요약재무제표

패널A: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항 목	2013년도			2014년도		
	일반기준	K-IFRS	차액	일반기준	K-IFRS	차액
유동자산	4,537	4,537		7,172	7,469	297
당좌자산	3,249	3,249		5,431	5,728	297
재고자산	1,288	1,288		1,741	1,741	
비유동자산	5,322	5,322		7,029	7,029	
투자자산	515	515		680	680	
유형자산	4,438	4,438		6,019	6,019	
무형자산	14	14		0	0	
기타비유동자산	355	355		330	330	
자산총계	9,859	9,859		14,201	14,498	297
유동부채	3,218	2,921	(297)	4,681	4,379	(302)
비유동부채	2,589	2,589		2,555	2,555	
부채총계	5,807	5,510	(297)	7,236	6,934	(302)
자본금	500	500		500	500	
자본잉여금	106	106		106	106	
이익잉여금	3,446	3,743	297	6,359	6,958	599
자본총계	4,052	4,349	297	6,965	7,564	599
부채및자본총계	9,859	9,859	0	14,201	14,498	297

폐널B: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 목	2013년도			2014년도		
	일반기준	K-IFRS	차액	일반기준	K-IFRS	차액
매출액	12,375	12,375		17,685	17,685	
매출원가	7,740	7,740		12,277	12,277	
매출총이익	4,635	4,635		5,408	5,408	
판매비와관리비	1,660	1,660		1,881	1,881	
영업이익	2,975	2,975		3,527	3,527	
영업외수익	131	131		229	229	
영업외비용	590	590		287	28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16	2,516		3,469	3,469	
당기순이익	2,185	2,482	297	3,065	3,367	302

폐널C: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항 목	2013년도			2014년도		
	일반기준	K-IFRS	차액	일반기준	K-IFRS	차액
영업활동현금흐름	2,378	2,378		2,924	3,221	297
당기순이익	2,185	2,482	297	3,065	3,367	302
현금유출이 없는비용등의가산	1,170	1,170		1,114	1,114	
현금유입이 없는수익등의차감	(2)	(2)		(65)	(65)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변동	(975)	(1,272)	(297)	(1,190)	(1,195)	(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21)	(3,221)		(2,494)	(2,49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248	248		436	43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469)	(3,469)		(2,930)	(2,93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89	489		(100)	(1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222	4,222		1,800	1,80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732)	(3,732)		(1,900)	(1,900)	
현금의증가(감소)	(353)	(353)		330	627	297
기초의현금	1,229	1,229		876	876	
기말의현금	876	876		1,206	1,503	297

패널D: 주요재무비율

항 목		2013년도			2014년도		
		일반기준	K-IFRS	차이	일반기준	K-IFRS	차이
안정성	유동비율(%)	141.0	155.3	14.3	153.3	170.9	17.6
	당좌비율(%)	101.0	111.2	10.2	116.1	130.9	27.0
	부채비율(%)	143.3	126.7	(16.6)	103.9	91.6	(12.3)
	자기자본비율(%)	41.1	44.1	3.0	49.0	52.2	3.2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24.0	24.0		19.9	19.9	
	매출액순이익율(%)	17.7	20.0	2.3	17.3	19.0	1.7
	총자본순이익율(%)*	27.0	30.7	3.7	25.5	27.6	2.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회)*	1.5	1.5		1.5	1.5	
	자기자본회전율(회)*	4.2	4.0	(0.2)	3.2	3.0	(0.2)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6.6	56.6		44.1	47.1	3.0
	매출액증가율(%)	69.3	69.3		42.9	42.9	
	순이익증가율(%)	317.2	373.8	56.6	40.2	35.7	(4.5)
	유형자산증가율(%)	101.4	101.4		35.6	35.6	

*총자본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을 산출하기 위한 총자본, 총자산, 자기자본은 “(전기+당기)/2” 임

3.2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변화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DK사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전 재무제표와 변경후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여 변경전·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변화와 변경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DK사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을 경우, DK사의 2013년도와 2014년도 변경전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표2>와 2013년도와 2014년도 변경후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 중 변화된 재무항목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8> 변경전·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 중 변화된 재무항목

패널A: 2013년도

(단위: 백만원, %)

항 목	변경 전	변경후		증 감			
		일반 기준	K-IFRS	일반기준		K-IFRS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총계	8,511	9,859	9,859	1,348	15.8	1,348	15.8
유동자산	4,732	4,537	4,537	(195)	(4.1)	(195)	(4.1)
비유동자산	3,779	5,322	5,322	1,543	40.8	1,543	40.8
부채총계	5,510	5,807	5,510	297	5.4		
유동부채	2,921	3,218	2,921	297	10.2		
자본총계	3,001	4,052	4,349	1,051	35.0	1,348	44.9
이익잉여금	2,395	3,446	3,743	1,051	43.9	1,348	56.3
영업이익	1,627	2,975	2,975	1,348	82.8	1,348	82.8
세전순이익	1,168	2,516	2,516	1,348	115.4	1,348	115.4
당기순이익	1,134	2,185	2,482	1,051	92.7	1,348	118.9
영업활동현금흐름	2,378	2,378	2,378				
영업활동자산부채변동	(1,467)	(975)	(1,272)	(492)	(33.5)	(195)	(13.3)
기말현금	876	876	876				
유동비율	162.0	141.0	155.3		(21.0)		(6.7)
부채비율	183.6	143.3	126.7		(40.3)		(56.9)
자기자본비율	35.3	41.1	44.1		5.8		8.8
매출액영업이익율	13.1	24.0	24.0		10.9		10.9
매출액순이익율	9.2	17.7	20.0		8.5		10.8
총자본순이익율	15.3	27.0	30.7		11.7		15.4
총자산회전율	1.7	1.5	1.5		(0.2)		(0.2)
자기자본회전율	5.1	4.2	4.0		(0.9)		(1.1)
총자산증가율	35.2	56.6	56.6		21.4		21.4
순이익증가율	116.4	317.2	373.8		200.8		257.4
유형자산증가율	31.4	101.4	101.4		70.0		70.0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일반 기준	K-IFRS	일반기준		K-IFRS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총계	11,778	14,201	14,498	2,423	20.6	2,720	23.1
유동자산	7,579	7,172	7,469	(407)	(5.4)	(110)	(1.5)
비유동자산	4,199	7,029	7,029	2,830	67.4	2,830	67.4
부채총계	6,934	7,236	6,934	302	4.4		
유동부채	4,379	4,681	4,379	302	6.9		
자본총계	4,844	6,965	7,564	2,121	43.8	2,720	56.2
이익잉여금	4,238	6,359	6,958	2,121	50.0	2,720	64.2
영업이익	2,154	3,527	3,527	1,373	63.7	1,373	63.7
세전순이익	2,096	3,469	3,469	1,373	65.5	1,373	65.5
당기순이익	1,994	3,065	3,367	1,071	53.7	1,373	68.9
영업활동현금흐름	3,221	2,924	3,221	(297)	(9.2)		
영업활동자산부채변동	(1,168)	(1,190)	(1,195)	22	1.9	27	2.3
기말현금	1,503	1,206	1,503	(297)	(19.8)		
유동비율	173.1	153.3	170.9		(19.8)		(2.2)
부채비율	143.2	103.9	91.6		(39.3)		(51.6)
자기자본비율	41.1	49.0	52.2		7.9		11.1
매출액영업이익율	12.2	19.9	19.9		7.7		7.7
매출액순이익율	11.3	17.3	19.0		6.0		7.7
총자본순이익율	19.6	25.5	27.6		5.9		8.0
총자산회전율	1.7	1.5	1.5		(0.2)		(0.2)
자기자본회전율	4.5	3.2	3.0		(1.3)		(1.5)
총자산증가율	38.4	44.1	47.1		5.7		8.7
순이익증가율	75.8	40.2	35.7		(35.6)		(40.1)
유형자산증가율	10.1	35.6	35.6		25.5		25.5

3.2.1 변경전·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변화

사례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전·후 재무항목 중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변화에 관하여 <표8>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변경후의 2013년도와 2014년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재무수치는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과 손익항목에서 변경전 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흐름은 2013년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가, 감가상각비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 미지급법인세의 증가로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14년도의 경우 미지급법인세 납부로 현금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무비율은 총자산의 증가,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순이익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지표가 큰폭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K-IFRS 최초 채택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변경후 2013년도와 2014년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재무수치는 총부채와 현금흐름에는 변경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총자산, 총자본, 손익항목에서 변경전 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비율은 총자산의 증가, 유동자산의 감소,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순이익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지표가 큰폭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여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산출하는지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차이

사례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최초 채택을 가정하여 재작성한 변경후 요약재무제표<표7>과 변경전·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 중 변화된 재무항목<표8>을 살펴보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재무수치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한 201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를 적용하든 총자산, 현금흐름항목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 등의 차이로 당기순이익, 총부채, 총자본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K-IFRS를 최초 채택할 경우에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특례조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 등의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총부채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법인세 등의 차액만큼 당기순이익, 총자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다 증가하게 된다.

둘째, 2014년도의 경우에는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당기순이익, 현금흐름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2013년도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던 총자산, 현금흐름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미지급법인세의 납부로 인한 현금성자산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 발생되는 법인세 등의 차액은 차기년도 총자산, 현금흐름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인세 등의 차액만큼 총자본은 누적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은 재무비율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한 2013년도는 K-IFRS를 최초 채택할 경우에는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차이가 없으며, 활동성 지표인 자기자본회전율은 총자본의 증가로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지표는 동일하거나 더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014년도는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지표는 2013년도 결과처럼 더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차이가 없던 성장성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더 증가하고 있으며, 순이익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년도 미지급법인세 납부로 현금성자산의 지출에 의한 총자산의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와 K-IFRS를 최초 채택할 때 중 어떠한 회계기준하에서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재무성과를 산출하는냐에 따라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연수 또한 종전 보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등의 부담은 당기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관한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의 변경과 K-IFRS 최초 채택을 가정하여 변경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전·후 재무항목 중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결과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여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산출하는냐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회계책임자가 감ガ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등과 같은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성과분석, 신용평가, 미래예측 및 기업간, 업종간 비교하여야 할 경우, 단순히 재무수치나 재무비율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주석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끝으로 본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봄과 같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 중 어떤 회계선택을 하고 어떤 회계기준으로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산출하는냐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초기 생산설비 등의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워져야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와 회계담당자, 또한 이들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방법과 회계기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비상장 중소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와 재무비율 뿐만 아니라 주석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김문철, 손성규, 최관, 한봉희(2010),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제2판, 서울, 신영사.
- 김광윤(2013),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사적 고찰,” 경영사학, 28(4), 127-152.
- 김정교, 김정호(2013),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86-2205.
- 공경태, 최종서(2014), “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경영학연구, 43(4), 1113-1144.
- 서란주, 김성용, 한민현(2011), “IFRS도입 후 기업의 회계방법선택에 관한 비교연구,” 세무회계연구, 29(0), 23-44.
- 신현걸, 임태균, 정석우, 한형성(20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기업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에 나타난 변화와 시사점,” KBR, 14(2), 129-145.
- 윤우영, 정원일(2015), “상장기업의 유형자산 평가모형 및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43(0), 131-149.
- 이동주(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유형자산 세무회계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만우(2013),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및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4(3), 253-277.
- 이만우, 김정선, 심준용(2014), “회계 및 세무 장부 이원화를 통한 감가상각절차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1), 127-161.
- 최국현, 손여진(2012), “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항목과 재무비율의 변화,”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0.
- 최관, 박종일, 최성호(2013), “IFRS 도입이 회계의 질에 미친 영향과 경제적효과: 문헌검토와 미래연구에 대한 제안,” 회계학연구, 38(2), 525-591.
- 최보람, 최기호(2011), “K-IFRS 적용에 따른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사례,” 회계저널, 20(2), 423-444.
- 최원욱, 이현아, 임주현(2012),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국내은행의 사례연구,” 회계저널, 21(5), 331-359.
- 최종서, 공경태(2014), “K-IFRS 도입 이후 감가상가방법 변경기업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39(6), 267-302.
- 최종학(2012), 숫자로 경영하라 2, 서울, 원앤원북스.

- 황인태, 강선민(2012), “IFRS가 기업의 회계정책선택에 미치는 영향; 감가상각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0-292.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2010),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201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 한국회계기준원(20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한국회계기준원(2012), K-IFRS 제1016호.